

경기도내 보호수 일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 용인, 양평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
(자체연구, 2009~2014)

김정유, 채하나

요 약

본 연구는 경기도내 보호수의 일제조사를 통해 보호수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로써, 금번 보고서에서 양평, 용인지역의 특이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부 보호수에 고사지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단기간의 쇠퇴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수목 생리적 쇠퇴로 보여지며, 원인은 근부 복토에 따른 뿌리호흡의 저하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복토의 원인으로는 주변 도로 노면을 높이면서 도로변 보호수 근부의 지표면이 동반 상승한 것이다. 또한, 건축물 인근의 보호수는 건축주의 편의를 위해 보호수 주변을 복토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보호수 지상부의 외과수술도 중요하지만 근부의 뿌리호흡이 원활한 구조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일부 보호수 생육상태가 원활치 못한 실정이다. 더불어 보호수의 역사적, 문화적으로 희소가치에 비해 평가 절하 된 주민 인식에 따라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보호수 쇠퇴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 서 론

보호수란 노목, 거목, 희귀목 중에서 명목, 보목, 당산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으로 보존 및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이고 이런 보호수는 우리선조들의 전통문화, 민속, 역사적 전설, 혼을 간직한 귀중한 자연유산이다(Heo & Ha, 2004; Park *et al.*, 2007; Kim *et al.*, 2010a). 또한, 보호수는 박물관에 진열된 문화제가 아닌 성장하고 변화하는 생명력이 있는